

# 페퍼스, '실바 복귀' GS칼텍스 꺾고 승수 더할까

내일 오후 4시 안방서 맞대결  
지난 경기 3-1로 역전승  
실바, 복귀전서 43득점 '땡땡'  
페퍼스, 구단 '최다승 타이' 관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라운드 상승세를 이어 GS칼텍스 서울Kixx를 꺾고 승수를 더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페퍼스는 오는 14일 오후 4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GS칼텍스를 상대로 2024-2025 V리그 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두 경기 만에 다시 만나는 상대다. 페퍼스는 지난 6일 도드람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상대로 GS칼텍스를 만나 세트스코어 3-1 역전승을 거뒀다.  
페퍼스는 이날 승리 4승째에 성공했고, 창단 이래 2라운드 최다승(3승)과 최다승점(9점) 기록도 작성했다.  
페퍼스는 이후 3라운드 첫 경기 상대로 '무패 행진' 중인 흥국생명을 만나 셋아웃 패배는 기록했지만, 테일러가 자리를 잡으면서 전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선 역전승 기세를 이어 페퍼스는 이번 경기에서는 팀 최다승 타이 기록을 노린다.  
페퍼스는 2022-2023시즌(5승31패·승점14), 2023-2024시즌(5승31패·승점17) 모두 시즌 5승에 그쳤다.  
장소순 감독으로 새 판을 짰 이번 시즌에는 3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5승'을 노리게 됐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GS칼텍스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발목 인대 부상으로 '휴식'을 취해왔던 상대의 '주포' 실바가 지난 11일 한국도로공사전을 통해 코트로 복귀했다. 실바는 복귀전에서 양팀 최다 43득점(공격 성공률 41.05%)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페퍼스는 테일러를 앞세워 실바와 맞붙을 놓는다.  
자비치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시즌 중반 합류했던 테일러는 앞선 GS칼텍스전에서 양팀 최다 21득점을 기록했다. 이어 '최강'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도 14점을 올리면서 박정아와 함께 팀내 최다 득점을 장식했다.  
무엇보다 그 동안 많이 시도하지 않았던 후위 공격을 새로운 옵션으로 더했다는 점이 반갑다. 테일러는 지난 흥국생명전에서 후위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 내는 등 V리그에 적응을 끝내고 자신의 기량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를 거듭할 수록 페퍼스의 짜임새도 좋아지는 모습이다.  
페퍼스는 흥국생명과의 1세트에서 리시브 효율 54.17%를 기록하면서 25%의 상대에 앞섰다.  
이에림과 한다혜도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페퍼스의 질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이에림은 앞선 GS칼텍스전에서 부진한 박정아를 대신해 투입, 13득점을 올리고 했다. 공격성공률은 48.0%를 기록했다.  
테일러와 실바의 흥미로운 맞대결이 펼쳐질 이번 경기에서 페퍼스가 구단 최다승 타이 기록을 작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4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GS칼텍스 서울Kixx와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치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전에서 득점에 성공한 동료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박정아. (KOVO 제공)

## 한국 여자배구, 세계 1위 이탈리아 1주차 상대

여자배구 내년 VNL 대진표 확정  
6월 4일~7월 27일 18개 팀 대결  
한국, 올해 '2승 10패'로 15위

여자배구 세계 최강 팀을 가리는 2025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여자부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FIVB는 지난 11일 내년 VNL 여자부 예선 1-3주차까지의 개최 장소와 대진을 공개했다.  
2025 FIVB VNL 여자부 경기는 내년 6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치러진다.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내년 6월 4일부터 8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1주차 경기

에서 2024 파리올림픽 우승팀인 세계랭킹 1위 이탈리아 등과 맞붙는다. 이어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주차 예선, 7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일본 간토에서 3주차 예선을 치른다.  
지난 2018년 기준 국제대회를 개편해 세계 남녀 배구의 정상을 가졌던 VNL은 내년부터 2개국을 확장해 총 18개국으로 경쟁의 범위를 넓힌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대회에서 16개국 중 15위(2승 10패)로 여정을 마무리했다.  
2022-2023년 대회에서 각각 12전 전패를 기록했던 한국은 2024년 대회에서 태국에 승리하며 30연패를 끊어냈고, 프랑스전 승리로 2승을 따냈다.  
2025 FIVB VNL에 나서는 여자대표팀은 2024

-2025 V리그 일정을 마친 4월 중순께 소집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2-2023년 한국 대표팀을 이끌던 세사르 에르난데스 곤살레스 전 감독이 최근 프랑스 여자배구 대표팀을 맡게 되면서 한국은 한때 가족과 대적하게 됐다.  
곤살레스 감독은 지난 2019년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로 한국대표팀에 합류한 뒤 2020도쿄올림픽 이후 라바리니 감독의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았다. 하지만 VNL 2년 연속 전패와 2024 파리올림픽 예선전 7연패 마감 등으로 계약 연장에 실패했다.  
세계랭킹 37위인 한국은 세계랭킹 19위 프랑스와 VNL 3주차 예선에서 맞붙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전남도 체육 유공자 시상식 열려

전국체전 6연패 우수 윤웅진·육상 3연패 이은빈 최우수선수

전국체전에서 우수 6연패를 달성한 윤웅진(전남도청)과 육상 여고부 3관왕·3연패를 이룬 이은빈(전남체고)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가 12일 오후 5시 남악 스키아워딩컨벤션에서 '2024 전남도 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치하했다. <사진>  
제105회 전국체전 해단식을 겸해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우수 산타 56kg급 6연패를 달성한 윤웅진과 육상 여고부 3관왕(100m·200m·1600mR)과 3연패(100m·200m)의 금자탑을 쌓은 이은빈이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수상은 전국체전에서 창단 이후 첫 우승을 한 FC목포 축구단과 여일부 단체인 3연패를 기록한 순천시정 양궁팀에 돌아갔다.  
67명이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송희웅

함평군테니스협회 고문, 김종식 전남축구협회 심판, 문선규 순천유도스포츠클럽 사무국장 등 3명이 대표로 수상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개식사에서 "파리올림픽에서 날아온 전남 선수들의 승전보에 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가장 높이 나부끼는 태극기를 보고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는 등 스포츠의 힘은 가치 대단하다"며 "전남 체육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격려사에서 "파리올림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전남 체육의 위상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체육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흥국생명-GS칼텍스, 김미연-문지윤 '맞트레이드'

프로여자배구 '1위'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최하위' GS칼텍스 서울Kixx가 12일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흥국생명의 아웃사이드 히터 김미연과 GS칼텍스의 아포짓 스파이커 문지윤이 유니폼을 바꿔입는다.  
지난 2011-2012시즌 3라운드 3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미연은 IBK기업은행과 흥국생명 등을 거쳤으며, 강력한 서브와 공격력이 강점이다.  
GS칼텍스는 아포짓 포지션까지 소화 가능한 김미연의 영입으로 공수 양면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2019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5순위로 IBK기업은행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데뷔한 문지윤은 2020년 GS칼텍스로 소속팀을 옮긴 후

아포짓-미들블로커 포지션을 넘나드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자랑한다.  
흥국생명은 파워풀한 스파이크에 강점이 있는 문지윤의 합류로 팀의 공격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GS칼텍스는 지난달 28일 흥국생명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 아시아쿼터 스테파니 와일러가 오른쪽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이 결정되는 등 전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상 고민에 빠졌던 GS칼텍스는 V리그 통산 14



문지윤 김미연  
시즌 동안 330경기에 출전한 '베테랑' 김미연으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